



hananimuibetop.org

부록 7a: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

이 페이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에 관한 연재의 일부이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부록 7a: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혼인](#) (현재 페이지).
2. [부록 7b: 이혼 증서 — 진실과 신화](#)
3. [부록 7c: 마가복음 10:11-12와 간음에서의 잘못된 평등](#)
4. [부록 7d: 질문과 답변 — 처녀들, 과부들,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

창조에서의 혼인의 기원

창조주께서 첫 사람, 곧 남자 [זָכָר (zākhār)]의 짝으로 여자 [נְקֵבָה (nēqēvāh)]를 만드신 직후 첫 혼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 이것은 창조주께서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가리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창세기 1:27).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이 남자는 땅의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암컷도 자신과 닮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았고, 그는 짝을 원했습니다. 원어 표현은 [עֵזֶר כְּנֶגְדּוֹ (‘ēzer kenegdō)]로,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아담의 필요를 보시고 그의 몸의 여성형, 곧 그를 위한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알맞은 돕는 자를 만들리라”(창세기 2:18). 그리하여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첫 연합

이렇게 하여 영혼의 첫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의식도, 서약도, 증인도, 잔치도, 등기도, 주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고, 이에 남자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여자로 하리니 이는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함이니라”(창세기 2:23). 곧이어 아담이 하와와 관계를 가졌고 [יָדָא (yāda‘) — 알다, 성관계를 맺다]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같은

표현(알다)이 임신과 연결되어 가인과 그의 아내의 연합에도 사용됩니다(창세기 4:17). 성경에 언급된 모든 연합은, 한 남자가 처녀(또는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아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단순히 이루어집니다 — 대개 “알다” 혹은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성경 기록에서도, 종교적이든 민사적이든 연합을 공식화하거나 축복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시는가? 가능한 선택지는 셋 — 하나는 성경적이며 참이고, 둘은 사람의 발명품으로 거짓입니다.

1. 성경적 선택지

하나님은 처녀가 자신과 합의 하에 첫 관계를 맺는 그 순간, 그 남자와 여자가 혼인했다고 보십니다. 만일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한 적이 있다면, 그 연합은 그 이전 남자가 죽었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2. 거짓된 상대주의 선택지

하나님은 남녀가 스스로 결정할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만큼 성적 파트너를 가질 수 있지만, 동거를 시작하는 등 관계가 “진지해졌다”고 두 사람이 결정하는 날에야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로 보신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남자의 영혼이 여자의 영혼과 결합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이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3. 가장 흔한 거짓 선택지

의식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연합을 인정하신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실상 둘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의의 변화가 있다면, 제3의 인간 — 법관, 등기 공무원, 사제, 목사 등 — 을 과정에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이 선택지에서도 그동안 여러 성적 파트너가 있었을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지도자 앞에 서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이 두 영혼을 연합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의식의 부재

성경은 네 번의 혼인 잔치를 언급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연합을 공식화하거나 축복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합이 유효하려면 어떤 예식이나 외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창세기 29:21-28; 사사기 14:10-20; 에스더 2:18; 요한복음 2:1-11). 연합의 확인은 처녀가 첫 남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는 순간(완성, 정혼)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나 법관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부부로 연합시키신다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간음과 하나님의 법

처음부터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여자가 둘 이상의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한 번에 단 한 남자와만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평생 동안 몇 명의 남자와 결합할 수 있는지에 제한은 없지만, 각 새로운 연합은 이전 연합이 죽음으로 끝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 남자의 영혼이 그것으로부터 오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전도서 12:7). 다시 말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연합하려면 과부여야 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쉽게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이 나발의 죽음을 들은 뒤에야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했을 때(사무엘상 25:39-40), 보아스가 남편 말론이 죽었음을 알았기에 롯을 아내로 맞았을 때(룻기 4:13), 그리고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죽은 형의 이름으로 씨를 잇게 하려고 다말과 결혼하라고 명했을 때(창세기 38:8). 또한 참고: 마태복음 5:32; 로마서 7:3.

남자와 여자: 간음에서의 차이

성경에서 분명히 관찰되는 바는, 여자를 향한 간음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남자를 향한 간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가르치듯, 남자가 한 여인과 헤어져 다른 처녀나 과부와 결혼하면 전 아내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주장은 성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에 근거합니다.

읽기: [마가복음 10:11-12](#)와 간음에서의 잘못된 평등.

그 증거는 주님의 여러 종들이 처녀들과 과부들과 여러 차례 혼인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았다는 많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메시아 자신의 오심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온 야곱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더할 때마다 간음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널리 알려진 예는 다윗의 간음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했을 때(사무엘하 12:9) 왕의 어떤 아내를 ‘상대로’ 간음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상대로’ 한 간음만을 책망했습니다. 기억하라, 그때 다윗은 이미 미갈과 아비가일과 아히노암과 결혼해 있었습니다(사무엘상 25:42). 다시 말해, 간음은 항상 남자를 상대로 일어나며, 여자를 상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성경이 다루는 사천 년의 기록에서 관찰되는 실제와는 다릅니다. 남자가 아내를 상대로 간음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사례는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읽기: [왜 예수님은 오늘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으시는가.](#)

이는 남자가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간음을 다르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형벌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했지만(레위기 20:10; 신명기 22:22-24), 남자의 처녀성은 혼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음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쪽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가 처녀도 과부도 아닐 때 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의 처녀(미경험) 남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한 적이 있는 23세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면, 그는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성이 다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5:32; 로마서 7:3; 민수기 5:12).

형사취수법과 계보 보존

여자가 첫 남자의 죽음 이후에만 다른 남자와 연합할 수 있다는 이 원리는, 가문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형사취수법에서도 확인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의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지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아내로 맞아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니...”(신명기 25:5-10. 또한 창세기 38:8; 룻기 1:12-13; 마태복음 22:24 참조). 주목할 점은, 시동서가 이미 다른 아내가 있더라도 이 법은 지켜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경우, 그는 룻을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양보하려 했으나, 그 사람이 또 한 아내를 얻어 유산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세워야 할지니라”(룻기 4:5).

혼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이 제시하는 혼인관은 현대의 인간 전통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혼인을, 남자와 처녀(또는 과부) 사이의 완성(성관계)으로 봉인되는 영적 연합으로 세우셨으며, 의식이나 주례자, 외적 예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결혼식에 의식이 포함되는 것을 성경이 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율법에 따른 영혼의 연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합은 합의된 관계의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해지며, 여자가 죽음이 그 결속을 풀기까지 한 번에 한 남자에게만 결합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혼인 잔치들에 의식의 부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초점이 인간의 형식이 아니라 내밀한 언약과 계보를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음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결론

이 모든 성경 기록과 원리를 비추어 보면,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전통이나 법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표준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자 — 곧 처녀이거나 과부인 여자 — 와 합의된 관계로 연합할 때, 그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봉인됩니다. 시민적 또는 종교적 의식이 공적 선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의 유효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고, 혼인 결속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문화의 변화나 인간의 의견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분의 계명에 신실한 것입니다.